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8. 23.(목)	담당부서	산업재난담당관
담당과장	최석진 과장(044-203-5580)	담 당 자	김금미 사무관(044-203-5582)

산업통상자원부, 19호 태풍 '솔릭' 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

– 태풍 피해발생에 대비, 기관별 긴급복구지원 등을 점검 –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8. 23.(목) 오전 8시, **에너지·산업단지 유관기관 기관장**들과 「**태풍 대응 긴급대책회의**」를 개최했다.

○ 이번회의는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, 원전, 발전소, 송배전망, 석유비축시설, 도시가스관 및 인수기지 등 **주요 에너지 시설과 산업현장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**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- (일시·장소) 8.23(목) 8:00~8:30, 산업기술센터 및 각 기관(영상회의)
- (참석자) **산업부**(백운규 장관, 기획조정실장, 에너지자원실장, 소관 국·과장), **13개 재난관리기관의 장**(한국전력, 한수원, 발전5사, 산단공, 전기·가스안전공사, 가스공사, 전력거래소, 에너지공단 등)
- (주요내용) 태풍 피해발생에 대비, 기관별 긴급복구체계 점검 등

□ 먼저, 백 장관은 금번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여 **산업·에너지 부문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**이 있다고 전망하고,

○ 산업부와 유관기관 전 직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, 전력, 가스, 태양광 등 **주요 에너지시설과 취약시설**에 대한 **자체점검과 사전 철저한 예방조치**를 강조했다.

○ 현재 발전소, 송배전망 등 주요 **에너지 시설이 정상 운영중**이고, 주요 산업단지내 **입주업체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**되나,

- 강풍·침수로 정전·시설붕괴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**긴급 복구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피해가 최소화**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.

□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태풍처럼 예고된 재해는 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어, **태풍이 완전히 소멸**할 때까지 **각 기관은 비상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,**

○ 특히, 강풍·폭우로 인한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**모든 유관기관이 협업**해 **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.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김금미 사무관(☎ 044-203-55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